



KAIA'S
CHOICE

TRÉSOR COLLECTION

Ω
OMEGA

충남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분점 02 310 1270 • 신세계 명동포점 02 2639 1910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Style

조선일보

AUGUST 2018
vol.176



TIFFANY & Co.

Believe In Lov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Between the Finger Ring,
yellow gold and diamonds.



play it like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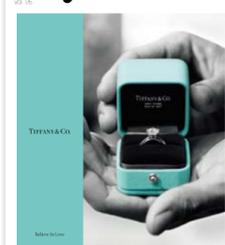
18



14

플라워 패턴 슬리브리스 드레스 1천2백만원 **자암바티스타 발리**, 스카이 블루 펌프스 83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주얼 장식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타니 by 미네타**, 주얼 장식 링 2백50만원 **타넬로**.

Style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886년 첫선을 보인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 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반지의 시초가 된 티파니의 대표작인 다이아몬드 링으로,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림으로써 빛이 하단까지 통과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7-9488



28

10



Style

조선일보
Issue.176 August 2018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 | 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대구, 남구, 연세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14 **A RENAISSANCE FOR PREMIUM SUVs** 레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실용성이 뛰어나면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맛과 실속을 겸비한 차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편안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위세가 여전한 기침했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는 SUV 생태계를 둘러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의 열전.
- 16 **A DREAM DRESS** 여기, 올 하반기에 소개될 따끈따끈한 '신상' 웨딩드레스 리스트와 함께 브라이덜 룩에 대한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러서리 패션 하우스의 드레스까지 엄선했다. 당신의 선택은?
- 18 **ROMANTIC WHISPER**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단어를 속삭이며 이 순간 하나가 된 두 사람. 이들이 앞으로 함께할 아름다운 순간을 빛내줄 사랑의 증표,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24 **LADY DAY** 개개인의 취향이 묻어나는 스타일링이후면서 실용적인 기능이 예비 신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2018 F/W 뉴클래식백.
- 26 **HIGH DEFINITION** 알맹이 단 한 번,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뿐 아니라, 웨딩이 끝난 후 특별한 날 꺼내 입을 수 있는 근사한 수트 한 벌은 필수다. 취향과 여유를 갖춘 당신을 위한 최적화된 테일러링 수트 브랜드를 소개한다.
- 27 **BELIEVE IN LOVE** 사랑의 서약, 블루 박스에 담긴 티파니의 웨딩링이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
- 28 **DRESS CHIC** 유니크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여빈 드레스 룩.
- 34 **BRILLIANT MOMENTS** 단아하면서 세련되고 우아한 룩으로 어느 자리에서나 돋보이고 싶은 예비 신부를 위해 준비했다. 특별한 날을 앞둔 그녀의 빛나는 순간과 함께할 스와로브스키의 제안.
- 36 **PORTRAIT OF LADY** 타카기(TASAKI)를 새롭게 이끌어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롱(Prabal Gurung)이 그려낸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
- 38 **INSPIRATION MEETS ARTISTRY** 세계 여러 나라의 내로라하는 산업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정인 정신과 수준 높은 공예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 컬렉션을 빛어내는 창조적 협업. 지난봄 말라노를 수놓은 루이 비통의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행사와 오는 9월 국내에서도 주문 가능한 한정판 가구, 홈 데코 컬렉션을 소개한다.
- 40 **FOR THE BETTER LIFE** 우수한 트래이닝과 강사진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에너지 충전과 휴식이 가능한 헬페리온을 소개한다. **BON VOYAGE** 본격적인 비강스 시즌을 기념해 선보이는 오스트라치펠로우의 고(Go) 목베개. 당신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 41 **BEAUTY IT LIST**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디데이를 위한 스페셜 케어 제품뿐 아니라 예비 신부와 양가 어머니께 선물하기 좋은 예산 라인까지, 당신이 눈여겨봐야 할 브라이덜 뷰티 리스트.
- 42 **EDITOR'S PICK** 웨딩 데이뿐 아니라 허니문까지 배려한,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케어 아이템.

Elegance is an attitude

Jung Woo Sung
Jung Woo Sung

LONGINES



The Longines Master Collection

론진 부티크
갤러리아 명품관 EAST 02) 6905-3519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 2164-5194 • 부산본점 051) 810-3186
신세계백화점 본점 02) 310-1597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 5170-2186 •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1123

롯데백화점 대전점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총청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 현대백화점 울산점 롯데백화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원도타워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인천공항점 제2터미널점 • 신라아이파크점세점 • 갤러리아면세점 63 • 동화면세점 • 두터면세점

Jewel
DEAR LADY
신부의 격을 높여주는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단 하나의 주얼리.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 네크라스 **카르띠에**. 다이아몬드를 폴리쉬
모티프를 정교하게 표현한 빅토리아 네크라스와 브레일릿 모두 **타사키**, 최상급
이코아 진주를 클래식하게 세팅한 프레스스 타피리 **타사키**, 에티 **베미진**

Focus
ONE AND ONLY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단 하나의 웨딩 링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프러포즈 이는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처럼 사랑하는 그녀만을 위한 다이아몬드 링에 대한 판타지는 카르띠에의 특별한 맞춤 서비스, '셋 포 유 바이 카르띠에(Set for You by Cartier)'로 실현 가능하다. 이는 카르띠에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링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다이아몬드로 고객에게 꼭 맞는 특별한 웨딩 링을 1:1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GIA의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0.18~2.99캐럿대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중에서 원하는 컷, 컬러, 투명도 등을 선택한 후 카르띠에가 제안하는 다양한 아름다운 마운트 가운데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고, 이에 맞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하는 진정한 아틀리에 주얼리다. 마운트 디자인부터 크기, 메탈 소재, 밴드의 다이아몬드 세팅 유무까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게 된 정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웨딩 링이 탄생하는 것. 카르띠에 웨딩 링을 상징하는 솔라티어 1985, 데스타네, 에팡셀 드 카르띠에, 라브 솔라티어 컬렉션 가운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제작이 이루어지는 4주 동안 각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카르띠에의 특별한 웨딩 링과 함께라면 이제 그녀에게 'Yes'라는 답을 듣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의 1566-7277 에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New Space
도심 속 유럽풍 부티크 vs 팜 스테이,
서로 다른 매력의 호텔 잇따라 개관

겉이 화려히 다른 이색적인 매력의 호텔이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끈다. 농촌의 녹음 짙은 자연 속에서 팜 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호텔 파머스빌리지와 도심에 자리한 프랜치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 호텔이 그 주인공들. 파머스빌리지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건축 고상 소재의 농촌형 체험형 테마 공원 상하원에서 개관한 호텔로, 따스한 느낌을 지어내는 나무 외벽, 크고 작은 자연석 석벽, 굵은 지붕 등이 특장인 외관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긴다. 3층 높이에 41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인용 테라스룸, 온돌룸, 패밀리룸, 그리고 24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단체룸 등 다양한 객실을 구비했다. 또 각각 최대 3백50명과 2백50명 수용 가능한 연회장과 세미나실을 두고 있다. 1박 2일 형태의 작업 체험 활동, 건강한 농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등 여러 유형의 숙박형 체험 활동도 마련돼 있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자리 잡은 레스케이프 호텔은 신세계조선 호텔의 새로운 독자 브랜드다. 문화 예술의 도시 파리를 모티브로 삼은 어반 프랜치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로, 프랑스 출신의 호텔 인테리어 대가 자크 가르시아(Jacques Garcia)가 인테리어를 담당했다. 19세기 파리 귀족 커뮤니티의 감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지상 25층 규모로 2백4개 객실을 갖추고, 홍콩의 유명 레스토랑 모트 32와 제휴한 광동식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중식당 '팔레드 신', 뉴욕의 미술관 2 스타 레스토랑 더 모던(The Modern)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칸탈레리 레스토랑 '라방 시크레',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헬 카페와 함께하는 '카페 스테이션' 등 미식 인프라도 눈여겨볼 만하다. 파머스빌리지 예약 063-561-6611, 레스케이프 호텔 공식 웹사이트 www.lescapehotel.com



레스케이프 호텔



파머스빌리지

Beauty
THE BEAUTIFUL GETAWAY

휴양지로 떠나면 피우치 속 뷰티 아이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평소 사용하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과 별개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피부와 헤어를 보호해줄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화장품은 물론, 물에도 강한 워터프루프 제품을 챙겨야 하나. 여기, (스타일 조션일보)가 패킹한 하루 뷰티 피우치를 보여준다.



스타일 조션일보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시간 물놀이를 해도 끄떡없는 강력한 리워드 림 제로인 **나스 파우퍼드 림 피그먼트**는 가볍고 매끄럽게 발리면서도 갈라져 침전장치를 한 듯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한다. 코랄 컬러 '콜리 컬러 콜리' (Call Me)와 브릭 레드 색상 '베일(Veil)'을 모두 챙겨 다양한 색에 활용할 것(5.5ml 3인1조), '시슬리 워터 프루프 스퀴어 페이스 선 케어'는 시슬리의 선 케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제로인, LVA-LVB 광선에 대응하는 보호 작용뿐 아니라 베이스 메이크업을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커버까지 갖췄다(50ml 19인1조). **뿜뿜 그랑디오즈 워터프루프 미스트**는 속눈썹 곡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며, 세 가지 투명 폴리머로 이루어져 물속에서도 광을 유지할 수 있다(10g 4인1조). 아메에 완성한 메이크업이 자취가 아자질 비단처럼? **나스 디올스킨 2인1용 안티어 24H 웨어 풀 커버리지 워터-베이스**를 꼭 챙길 것. 기존 물류도 피운데이션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피그먼트를 함유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으나(40ml 6인1조). 비탈스 후유증으로 고글린 피부만큼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색해진 여권이다. 하루만 **트루워터 스퀴어 프로텍션 오일 KPF90**이면 걱정 없다. 워터프루프 타입으로 밀과 물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원하는 만큼 수시로 뿌려 두피와 모발을 보호할 수 있다(100ml 3인1조). 물속에서도 도톰한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할 **컬러 다이아몬드**, 블랙 투터 브라운, 네이비, 카키까지 다양한 색으로 선보인다(1.2g 3인1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네비 브라운 퍼펙트 디파인드 롱웨어 브로우 렌슬**인데, 왁스와 에몰리언트를 조합한 포플러로 밀과 물에도 지워지지 않는(1.33g 4인1조). 색조 메이크업을 즐기지 않는 이들도 옆에 생을 붙여 넣을 립 제품은 필수다. 단 하루 색인 고글린대, 강력한 클러스티드 컬러의 **시슬리 워터프루프 코랄 드 플뢰르 매트 265**를 선택할 것(1.2g 4인1조). 약보한 스킨케어 제품은 줄기는 카모미리온 블링 블링 디파인드 블링 블링, 입술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 **피우치 슈가 스킨케어 스프레이**를 선택할 것(1.2g 3인1조).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고 탭 탭 입술을 연출할 **앤디 에스티 로더 퍼피 컬러 앤디 페인트-온 리워드 림 제로인 #402** 페이스 페퍼 컬러를 눈여겨볼 것(7ml 4인1조). 에티 **이지엔**



Exhibition
새 공인을 찾은 대구 맥화랑, 개관 기념 <김지훈> 개인전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지역 1세대 화랑이며 대구 문화 예술계의 자산으로 꼽히는 맥화랑이 터를 옮겨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 1976년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구에 문예 연이bare 지역의 문화 허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긴 맥화랑은 최근 대구 중구 대명동을 떠나 북구 침산동으로 이전했다(중양대로 114길 12). 상상초월신선터와 젊은 세대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침산동에서 예술을 매개체로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작가 발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품은 채 열리는 새 출발이다. 김주영 맥화랑 대표의 순수 미술 컬렉션 위주로 꾸민 기존 전시 방향과 달리 동시대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찍이 대구의 미술 문화 부흥에 앞장섰던 맥화랑은 1980년대 미술 전시뿐 아니라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며 무용가 공옥진, 이태원 초청 공연을 비롯한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이루는 선구자적 면모를 보인다. 맥화랑은 이번 갤러리 이전을 기념하는 개관전으로 30대 작가인 김지훈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김지훈이 지난 2년 동안 태극을 오가면서 작업한 백금 프린트와 캔버스 프린트 10여 점을 선보이는 사전전이다. 이국 땅의 강렬한 햇빛, 매연, 흙먼, 길화색이 되는 가리 등을 작가 고유의 시선으로 활기차게 시각화한 작업으로 구성된 전시다. 주제는 'Summer Makes a Poem'. 전시는 8월 10일까지. 문의 053-421-2005

TASAKI

www.tasaki.co.kr 02.3461.5558

LANCÔME
PARIS

1 상세하고 정교한 비즈 장식의 우아한 웨딩드레스 1천만원대 **인탈드레이 by 아틀리에 쿠**, 2 퍼플 그라데이션 렌즈에 양쪽 귀에 진주 장식을 다한 선글라스 50만원대 **미유미유 by 록스타카 코리아**, 3 브랜드의 상징적인 짐승장식 모티브로 디자인한 레더 브레이슬릿 57만원 **볼 포드**, 4 포르나세티만의 유행로 채운, 보들 자체로도 멋진 리빙 오브제인 포르나세티 프루미 뉴 컬렉션 향초, 30g, 25만원 **포르나세티 by 10 코르소 코모**, 5 플라워 모티브의 헤어 핀 1백만원대 **송아 by 아틀리에 쿠**, 6 은은한 반짝임을 선사할 티아라 밴드 1백만원대 **캐넌 울프 by 아틀리에 쿠**, 7 우아한 진주 세팅 브로치 가격 미정 **사벨**, 8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자개, 옻칠 등으로 아티스틱한 터치를 더해 완성한 PM71-01 탈리스만 워치 가격 미정 **리처드 밀**, 9 볼드한 진주에 벨 스타드를 장식한 이어링 60만원대 **디올**, 10 에프터드레스 룩과 매치할 화려함을 배가시킬 슬리브 글러브 슈즈 1백18만원 **쥬세페 자노티**, 11 속옷이 필요한 특별한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할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 상백인 35만원대 **크루그**, 12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플라워를 연출한 필름도 높은 박스 60만원대 **루이 비통**, 13 브랜드의 상징적인 간지니 클로저를 재해석한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스튜디오 백, 35x30cm, 3백9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14 상투리아를 연상시키는 드림 아이링 37만원 **스외로브스키**, 15 골드 글러브 미니 클러치, 17x9cm, 1백46만원 **지미유**.

아틀리에 쿠 02-517-3889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볼 포드 02-6905-3640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사벨 02-543-8700 디올 02-513-0300 쥬세페 자노티 02-543-1937 루이 비통 02-3432-1854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스킨로브스키 1661-9060 지미유 02-3443-9469 리처드 밀 02-512-1311 크루그 02-2639-1964

for her
Selection

기품 있는 우아함을 지닌 예비 신부를 위한, 궁극의 아름다움을 담은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2백만 개의 랑콤 장미 즐기세포로
깨어나는 피부 생명력

ABSOLUE L'EXTRAIT
압솔뤼 렉스트레 크림

제품 50% 중, 장미 세포가 9억 2천만 개 함유



1 레오파드 프레임의 라운드 세이프 아이에어 50안경대 **미쓰다 by 나스월드**. 2 클래식한 블랙 컬러의 턱시도 슈트 1천3백80만원, 화이트 셔츠 88만원, 스트라이프 패턴 보타이 20만원 모두 **브리오니**. 3 스카어 프레임 선글라스 47만원, 옐로게이터 선글라스 케이스 5백90만원 모두 **벨루티**. 4 멋스러운 체크 실크 타이 32만원 **롬 포드**. 5 뽀족한 스파이크 장식 보틀과 센수얼 레더리 핸디 어우러져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발렌티노 우오 인텐스 향수 100ml, 14만3천원 **발렌티노**. 6 LV 시티 더블 스트랩 브레이슬릿 44만원 **루이 비통**. 7 혁신적 신소재 커브(Curve)와 유니크한 셀 디자인의 7R 스피너 올리브 캐리어 2023치. 46x70cm, 1백15만원 **하트만**. 8 남자다운 2인용이 엮보이는 라이더 1백79만원 **에스.티. 듀폰 파리**. 9 비클 디테일을 더해 클래식한 맛을 살린 레이스업 슈즈 1백4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10 사막여우 모티브로 장식한 캄이 톤보이는 르 브띠 프랑스 두에 만년필 1백34만원 **몽블랑**. 11 블루 합성 스프링클 장식한 스텔링 실버 소재의 신도시 드 캐르피에 카프스 링크 79만5천원 **카르피에**. 12 패들룩 장사의 블랙 브리프케이스. 40x28cm, 6만6천원 **에르메스**. 13 송아지가죽 고급 디테일로 완성한 브레이슬릿 50만원 **에르메네젤도 제나**. 14 깔끔한 화이트 다이얼에 골드 디테일을 더한 다이아몬드를 세련된 오토매틱 COSC 워치 2백69만원 **레오 라도**.

브리오니 02-3274-6483 벨루티 02-547-1895 롬 포드 02-6905-3534 발렌티노 02-3443-1805 루이 비통 02-3432-1854 하트만 02-3448-5914 에스.티. 듀폰 파리 02-2106-3596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몽블랑 1670-4810 카르피에 1566-7277 에르메스 02-542-6622 에르메네젤도 제나 02-518-0285 나스월드 02-2158-7929 라도 02-2143-1825

for him Selection

세련된 안목과 취향을 갖춘, 신랑의 품격을 높여줄 웨딩 아이템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신랑의 품격을 높여줄 웨딩 아이템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THE NEW VOLVO
XC40



가져야 할 것만 가질 것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이제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는 버릴 시간.

최고 수준의 안전은 기본, 인포테인먼트부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충분한 공간까지.

당신이 필요한 것만, 모두 갖춘 SUV.
THE NEW VOLVO XC40



불보만의 안전은 기본

자동 긴급 제동부터 반차중 주행, 차선 유지 보조 등 불보의 인텔리세이프 풀패키지가 기본!

최신 편의 시스템부터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공기 청정 기능부터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스마트한 공간 활용까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수납 공간, 시론 구동과 드라이브 모드로 어디든 자유롭게!

서울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용산 02 794 18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031 707 2266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대구 053 768 5588 **NEW** 울산 052 268 0900 경상 창원 055 714 8020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광안 051 759 1600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orea](https://www.facebook.com/volvocar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orea](https://www.instagram.com/volvocarkorea) **XC40** 마이크로사이트 thenewxc40.co.kr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XC40 T4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740kg, 자동 8단) 복합연비:10.3km/ℓ(도시연비9.2km/ℓ, 고속도로연비 12.2km/ℓ) CO2배출량:168g/km, 등급:4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lliSafe(City Safety, Pedestrian Detection & Collision Warning with Full Auto Brake 등) 지능형 안전 시스템은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반차중 주행(Pilot Assist)은 운전자의 주행(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을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INS, 모델 적용 가능한 기능은 전시장 문의 *본 광고 이미지는 액세서리 등을 별도 장착한 모델로서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 및 사항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A Dream Dress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순간을 고대하며 신부들이 유일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바로 웨딩 데이의 하이라이트, 웨딩드레스다. 트렌드에 좌우되기보단 개인의 취향과 이미지, 체형, 로망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만큼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 하나의 드레스를 고르려면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보는 것만이 해법이다. 여기, 올 하반기에 소개될 따끈따끈한 '신상' 웨딩드레스 리스트와 함께 브라이덜 룩의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드레스까지 엄선했다. 당신의 선택은?

OSCAR DE LA RENTA

FENDI

MARCHESA

ERMANNO SCERVINO

에르메르

BERTA

MIRA ZWILLINGER

AMSALE

INBAL DROR

REEM ACRA

MONIQUE LHUILLIER

VALENTINO

DIOR



(왼쪽부터 차례대로) **소메 리안 에비앙스 웨딩 밴드** 사랑은 이어주는 동시에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인연을 뜻하는 링크 디자인이 로맨틱한 밴드 링, 다이아몬드 링 9백60만원, 화이트 골드 링 2백10만원, **타사키 파야노 카를 밴드** 맑은 음성과 하모니를 지어내는 피아노의 선율을 모티브로 제작한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의 밴드 링, 다이아몬드 투렛 링 4백10만원, 블랙 다이아몬드 링 1백70만원, **타사키 바운드 슬러터** 링 유려한 리본의 곡선을 형상화한 밴드 디자인이 아름다운 슬러터 링, 1.57캐럿 기준 6천99만원, **타파니 인브레이스 밴드 링** 플러티움 밴드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한 웨딩 밴드 링, 단독으로 착용해도 아름답지만 타파니 세팅 링과 레이어드하면 화려함이 배가된다, 1천만원, **사셀 와인 주얼리 코코 크라쉬** 사셀의 X자 칼링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불꽃같은 디자인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미디엄 링 49만원, 스몰 링 29만원, 이미지 좌측의 다이아몬드 테니스 네크리스 **카르띠에**.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비제로원 카를 밴드** 개성 있고 스타일리시한 카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불가리의 대표 아이콘이 베스트셀러 비제로원 링,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고, 세리미 소재의 매지가 도넛이다, 각 1백만원, **피아페 포제션 카를 밴드** 피아페를 상징하는 밴드 링으로, 링 안의 링 콘셉트로 밴드가 회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아몬드 풀 파베 링 2천만원, 다이아몬드 핑크 골드 링 4백만원, **소메 조세핀 에글라 플로럴 쿠션 컷 슬러터** 링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슬러터 링, 소메의 첫 번째 고딕 나폴레옹의 대관식 강에서 착안한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특별하다, 1캐럿 기준 3천만원, **소메 비 마이리브 슬러터** 링 소메의 아이콘이자 견고한 사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발집 모양 욕각 모티브를 밴드에 대해 유니크하면서 불꽃같은 디자인을 완성한 슬러터 링, 0.5캐럿 기준 1천99만원, **카르띠에 브로드리드 카르띠에 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두 줄로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밴드 링, 골드 링으로는 물론 단독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2천399만원, **카르띠에 1895 슬러터** 링 궁극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위임을 발산하는 카르띠에의 대표 슬러터 링,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별도로 골드 링을 함께 착용하지 않아도 화려함을 자랑한다, 2캐럿 기준 가격 미정, **카르띠에 트리니티 드 카르띠에 카를 밴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골드 소재의 하모니로 이루어진 트리니티 컬렉션의 밴드 링, 다이아몬드 링 9백만원, 밴드 링 1백90만원, **타파니 타파니 T 루 링** 브랜드의 상징적인 X-설 T를 모던하면서도 위트 있게 재해석한 밴드 링, 파베 다이아몬드 링 9백만원, 로즈 골드 링 2백만원.

romantic Whisper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빅토르 위고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단어를 속삭이며 이 순간 하나가 된 두 사람. 이들이 앞으로 함께할 아름다운 순간을 빛내줄 사랑의 증표,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카르띠에 리브 링** 카를 밴드 중 가장 유명한 디자인이 아늑하게, 사랑을 뜻하며 전용 드라이브로 착용하게 되어 있는 리브 브레슬릿에서 모티브를 얻은 밴드 링, 다이아몬드 링 5백70만원, 화이트 골드 링 2백10만원, **불가리 불가리 로만 소르베 카를 밴드** 더블 불가리 로고 장식 시아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밴드 링 각 3백만원, **사셀 와인 주얼리 마들라네 브라이덜 컬렉션** 링 영롱한 메인 스톤과 칼링 모티브의 밴드가 조화를 이루는 여성스럽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슬러터 링, 0.55캐럿 기준 1천만원, **타파니 타파니 T 루 내로우 링** T 루 링의 두께를 줄인 버전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밴드 링은 신부에게, T 리안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은 신랑에게 추천한다, 다이아몬드 파베 링 5백만원, 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 **사셀 와인 주얼리 카르띠에 브라이덜 컬렉션** 링 카르띠에 꽃 모티브의 아름다운 곡선을 접목한 있고 심플한 밴드 링, 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 플러티움 밴드 링 1백만원.



(왼쪽부터 차례대로) **카르띠에 워딩 밴드** 밴드 전체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딩 밴드 1천299만원, **카르띠에 데스티네 슬러터** 링 에메랄드 컷의 메인 스톤을 더욱 화려하게 부각하는 마이크로 파베 세팅으로 영롱한 광채를 한층 강조한 슬러터 링, 2.01캐럿 기준(+VSI 등급) 7천999만원,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시그니처 링** 밴드 리안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한 비즈 장식과 밴드 윗면에 이글리처럼 인그레이빙한 브랜드 시그니처가 특징인 볼드한 밴드 링, 각 3백만원,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슬러터** 링 베를리 컬렉션의 상징인 정교한 비즈 세팅의 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슬러터 링, 1캐럿 기준 6천만원, **반클리프 아펠 앙리시 워딩 밴드** 1986년에 탄생한 스노우플레이크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워딩 밴드, 중앙에 놓인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두 줄의 또 다른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사랑과 결속을 상징한다, 3천299만원, **타파니 세팅 링** 워딩 링의 대령사이자 시초가 된 타파니 세팅 링,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차원이 다른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다, 1.60캐럿 기준 5천만원, **타파니 파쿠스 리브 링** Love는 글자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링, 슬러터 링과 함께 레이어드하면 더욱 사랑스럽다, 5백만원, **타파니 하모니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 링** 밴드의 양 끝이 하나로 모이는 세이프로, 로맨틱한 균형을 이루는 두 사람의 하모니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골드 링 3백만원.

이니스테트 200서 크로스트워 워치 999만, 생루이, 크로스트워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캐럿이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볼가리 루체아 투보가스** 볼가리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뉴 여성 워치. 볼가리의 아이코닉한 여성 워치인 루체아의 페이스에 투보가스의 브레이슬릿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장쾌한 화려함을 지닌 워치를 찾는다면 단연 이시게다. 7백만원대. **피아제 알티플라노 골드 브레이슬릿** 클래식 에를 워치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골드 소재의 34mm 여성 워치. 전체가 18K 핑크 골드로 이루어졌으며 배경에 6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얇은 케이스와 간결한 다이얼의 조화가 우아하다. 4천만원대. **타파니 라테알 워치** 우아한 블랙 사틴 스트랩, 정교하게 세공한 단란한 크기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과 오벌 형태의 케이스까지 여성스러운 면모를 모두 담은 주얼리 워치다. 1천만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보이 프렌드 매뉴얼 워치** 상징적인 팔각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부드럽고 차분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보이 프렌드 라지 사이즈 워치. 모던하면서도 트랜디한 요소를 갖춘 여성 시계로, 선명한 코랄 컬러의 약가죽 스트랩이 특히 시트한 포인트를 더해준다. 1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로 성세하게 비드 세팅한 네 알 클로버 모티브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주얼리 워치. 우아한 칼라감이 매력적인 내추럴 화이트 머더오브펄을 세팅해 워치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브레이슬릿 역할도 톡톡히 한다. 1천만원대. 이미지 좌측에 있는, 최상급 아교아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리드미컬하게 세팅한 롱 네크리스 **타사키**.

(왼쪽부터) **본진 마스터 캠퍼스** 본진 제품 중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한 부동의 베스트셀러 남성 워치인 마스터 캠퍼스. 클래식하면서도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간결한 디자인과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줄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인 시계로, 비즈니스 룩은 물론 스포티 룩에도 잘 어울린다. 3백만원대. **왕복왕 스타 레거시 폴 캠퍼스** 미장진인 코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스페셜 기능을 갖춘 남성 워치로, 요일, 일, 월, 연례까지 다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얼 주변을 둘러싼 31개의 숫자 사이로 레드 컬러의 작은 초승달이 움직이며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오토매틱 워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9백68만원. **블랑팡 발레레** 변하지 않는 우아함이라는 표현은 이 시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워치 마니아들의 로망으로 손꼽히는 블랑팡 발레레에 주, 요일, 라지 데이트 기능을 더해 업그레이드한 퀴블라키이션 워치. 매끈한 손백의 에나멜링 다이얼에서 품격이 느껴진다. 4천2백만원대. **오메가 시미스터 이쿠이테라 150M** 클래식과 스포티즘을 모두 아우르는 특별한 타임피스. 오메가의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시계로, 최고급 보트의 나무 데크를 연상시키는 다크 패턴을 다룬 다크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에서 남성기가 물씬 느껴진다. 18K 세드나™ 골드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콤비를 이루며 150m 방수 효과를 자랑한다. 1천만원대.



한눈에 봐도 특별한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메인 스톤으로 사용하고, 그 주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데스티네 슬러터어 링. 2.06캐럿 가격 미정 **카르띠에**.



사랑을 존히하게 이보다 더 로맨틱한 링은 없을 것이다. 1885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4개의 돌을 팔레트와 와이어 보드로 이루어진,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트 세이프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1895 슬러터어 링 3.31캐럿 가격 미정 **카르띠에**.



(왼쪽부터) 쿠션 컷 다이아몬드 주위에 두 줄로 비드 세팅한 다이아몬드 슬러스트 링 1캐럿 기준 4천만원대. 메인 스톤의 최상급 옐로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두 줄 비드 세팅 칼라리스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옐로 다이아몬드 슬러스트 링 1.39캐럿 3천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부터) 이탈리아로 꽃잎을 뜻하는 이름처럼, 유려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에 타사키만의 시그처 빛깔 컬러인 SAKURAGOLD™로 완성한 라벨로 슬러터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시트홀더 자리의 다이아몬드 커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피아세테 플래티넘 슬러터어 링 2.04캐럿 가격 미정 모두 **타사키**.



플래티넘 밴드 양쪽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중앙의 메인 슬러터어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로망스 링 1.5캐럿 6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시대의 영원한 뮤츠, 조세핀 황후에게 헌정받은 조세핀 캠퍼스으로, 물방울이 반짝거리는 듯 정교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소용돌이 구조의 폴 파베 다이아몬드 세팅 링은 중앙에 프롭 세팅한 2개의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이 특징인 드 뉴비트윈 더 핑거 링 1.36캐럿 가격 미정 **쇼페**.

메인 스톤 주위는 물론 18K 화이트 골드 밴드까지 총 4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한 분위기를 지니는 패션 인게이지먼트 링 1.87캐럿 7천만원대 **피아제**.



(위부터) 사들의 아이코닉한 펠트 패턴을 바탕으로 탄생한, 플래티넘 소재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링과 총 0.4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에 1.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두에 얹은 코코 크라쉬 브라이얼 슬러터어 링 3천만원대, 7캐럿의 플라워 모티브의 슬러터어 링 1캐럿 3천만원대 모두 **사넬 화인 주얼리**.



(위부터)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첫 순간을 뜻하는, 다이아몬드를 감싸 안은 듯 디자인한 두 줄의 플래티넘 브러시 밴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인포트로 더모레 링 1캐럿 2천만원대. 볼가리 고유의 성세함과 디테일이 돋보이는 베-치아 라운드로, 7골프 있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볼가리의 대표적인 웨딩 링으로 자리 잡은 베-치아 1503 링 1.5캐럿 5천만원대 모두 **볼가리**.

까르띠에 신토스 드 까르띠에 &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브랜드의 유구한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직사각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커를 워치. 1904년 처음 탄생한 신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는 배젤 위 스크루 디테일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 케이스와 스트랩을 있는 라인이 한층 더 날렵해진 것은 물론, 픽스워치 시스템을 통해 스트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전 라인 모두 가죽 스트랩을 추가 제공한다. 남성용 워치 1천1백만원대, 여성용 워치 1천만원 이하부터, 1980년대에 첫선을 보인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를 모던하게 재탄생시킨 버전. 상징적인 로마숫자 인덱스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특징으로, 핑크 골드 소재로 선보인다. 2천7백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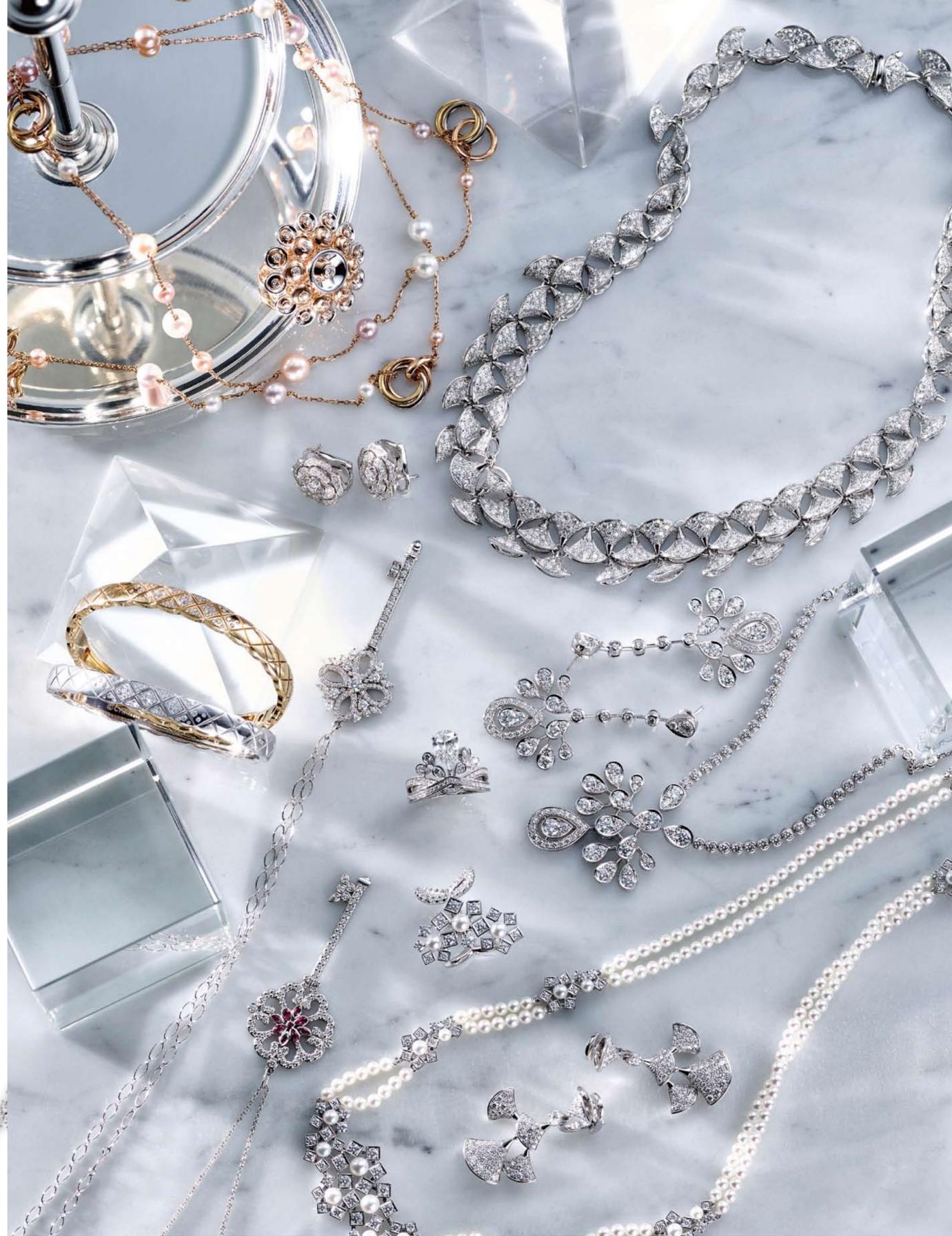
오메가 피라미드 이루어야만 & 드빌 트래저 오메가워치 새로운 버전을 담아 첫선을 보이는 드빌 트래저 워치. 브랜드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가 돋보이는 직경 33mm의 슬림한 스텝 케이스 속관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다이얼은 장식이 특징이다. 블루 컬러의 우아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핸즈가 오메가 워치의 품격을 더욱 높여준다. 6백만원대. 청량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블루를 담은 패어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피라미드 이루어야만은 오랜 애용자들과 함께 가는 타임피스로, 남성을 위한 애용 워치로 인기 있는 제품이다. 최고급 보트의 나무 맥을 연상시키는 가로 형태의 티크 패턴이 새겨진 블루 다이얼이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6백만원대.



몽블랑 스타 레거시 문예아츠 & 스타 레거시 스물 세컨즈 워치 1859년부터 이어져온 특별한 미네르바의 유산에서 영감을 얻은 몽블랑 스타 레거시 컬렉션. 남성을 위한 클래식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에 로망틱한 문예아츠를 정제한 워치는 몽블랑 스타 기묘세 패턴의 심버 화이트 다이얼에 우아한 노릇인 모양의 핸즈와 양파 모양 크라운 등 브랜드의 DNA를 갖추었다. 5백28만원. 여성스러움과 파인 워치메이킹 정신을 결합한 스타 레거시 스물 세컨즈 워치는 32mm 사이즈의 케이스를 장착하고 배젤 주위에 68개의 다이얼을 장식했다. 또 3시와 9시, 12시 방향의 엔트리사이트 컬러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6시 방향의 다이얼링 디테일로 우아함을 배가했다. 6백만원대.



브래게 클래식 5277 & 8068 컬렉션 클래식한 멋을 사랑하는 애미부부에게 제안하는 패어 워치. 직경 30mm 케이스의 여성을 위한 클래식 8068 워치는 로즈 엔진에 이음해 장인의 손으로 직접 기묘세 패턴을 장식한 머디오브렐 다이얼과 64개의 다이얼을 새긴 배젤, 러브의 조화가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다. 2천6백만원대. 직경 38mm의 케이스에 우아한 심버 골드 다이얼을 매치하고, 블랙 알리바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남성용 클래식 5277 워치는 브래게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상징적인 기묘세 패턴을 수공으로 새겨 더욱 특별하다. 2천5백만원대. 이미지 우측에 배치한, 다이얼로 꽃잎을 표현한 빅토리아 네크리스 티파니.



(왼쪽 위 심버 트레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트리니티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이음 그레모 핑크와 화이트, 옐로, 세 가지 색상의 담수 진주와 화이트, 핑크, 옐로 골드 트리니티 링 모티브가 조화롭다. 1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부통 도르 링 메종의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조합해 진주와 메탈 세공 기법을 통해 피아에트 모티브의 대담한 곡선을 표현한 링 2천7백만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브통 드 카멜리아 아이링 0.51캐럿 센터 다이얼과 0.147캐럿 라운드 컷 다이얼로 카멜리아 꽃송이를 완성한 아이링 1천만원대. 불가리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아이 굽곡한 부채 형태가 연속되어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얼을 새긴 네크리스 기적 미경. 소매 조세인 아그레드 알리바이터 컬렉션 소매 특유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풍겨 더 다이얼의 황홀경까지 자아내는, 조세인 황우를 오마주하며 탄생한 컬렉션이다. 센터 다이얼을 중심으로, 반짝이는 물방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패어 세이프 다이얼이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는 아이링 4천5백만원대. 네크리스 5천만원대, 여왕의 크라운을 연상시키는 링 8천5백만원대. 타사키 플로럴 스타즈 컬렉션 신부가 입고 있는 부케를 연상시키는 우아하면서도 교육적인 분위기가 특징으로, 타사키만의 최상급 아로마 진주와 다이얼로 완성한 링 1천5백50만원, 네크리스 3천5백만원, 불가리 디바스 드림 아이링 부채를 모티브로 보이는 기하학적 매력의 아이링 2천5백만원대. 티파니 키 컬렉션 펜던트 센터에 핑크빛 루벨라이트 컬러 스톤을 포인트로 준 인헌트 프라임 로즈 키 펜던트 1천3백만원대 (세진 별도), 아름답게 피어난 꽃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양날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빅토리아 키 펜던트 1천5백만원대 (세진 별도), 사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아름다운 수놓은 다이얼로 세팅된 도보이는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로 선보이는 브레이슬릿 각 1천만원대. 에디터 배이진, 권유진, 이지연

(왼쪽부터 차례대로) **샤넬 클래식 플립 백** 사철의 상징적인 클래식 백에 항구도시의 특성을 담은 모티브를 유틸 있게 매치한 샤넬 피리-황부르크 공방 컬렉션 클래식 플립 백, 부드러운 양가죽에 울 소재를 더해 더욱 특별하고 개성 있는 룩을 완성한다. 26X16cm 가격 미정, 문의 02-543-8700
에르메스 모자이크 24 백 에르메스에서 울가을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으로, 파리 포부르 생 토노레 24번지에 위치한 에르메스 부티크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바늘이 돋보인다. 17X16cm 9백만원, 문의 02-542-6622 **루이 비통 트윈스트 PM 백** 루이 비통을 상징하는 'LV' 알파벳을 아담이 잠금장치로 재해석한 새로운 아이코닉 백, 미니 백이지만 울겔 모양으로 디자인한 바닥 면 덕분에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18.5X15cm 3백90만원, 문의 02-3432-1854



폴앤보 비아 델라 스피가 디오네 M 백 간결한 세이프가 클래식한 울겔보의 아이코닉한 기법으로, 컬러감이 화사한 최상급 양가죽을 사용해 품위와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27X17cm 2백980만원, 문의 02-2230-1225



버버리 스몰 벨트 백 버버리 트랜치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벨트 장식이 포인트인 토트백, 두 가지 컬러의 부드러운 가죽을 양면에 배치한 감각적인 컬러 플레이가 돋보인다. 23X26cm 2백55만원, 문의 080-700-8800



Lady day

'예물 가방'이라는 이름으로 정답처럼 전해오던 클래식 백의 시대는 가고, 이젠 개개인의 취향이 묻어나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가방이 예비 신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2018 F/W 뉴 클래식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테가 베네타 미니 피아파 백** 세련되고 시원스러운 컬러 매치와 체크 패턴의 울더 스트랩이 돋보이는 프렌치 카프 스킨 소재의 토트 겸용 숄더백, 상징적인 인트레치아토 디테일의 버클 장식이 멋스럽다. 21X13cm 3백21만원, 문의 02-3438-7601 **구찌 미니 톨 텐트 살비 백** 구찌 하우스의 아카이브인 골드 체인 버클과 3색의 펠 디테일이 포인트인, 견고한 형태감을 자랑하는 미니 토트백. 20X15cm 3백만원, 문의 1577-1921 **켄디 셀라리아 미니 피카부 백** 렌디의 유구한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셀라리아 라인에서 선보이는 미니 피카부 백, 최고급 로만 가죽의 질감과 자연스러운 핸드 스타일 디테일이 매력적이다. 23X18cm 4백65만원, 문의 02-2056-9023



프라다 마리지 백 군더더기 없이 모던한 디자인에 하늘색 라인과 로고만 부각한 토트백, 기존의 삼각형 패치를 로고 없이 심플한 가죽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27X17cm 2백40만원, 문의 02-3218-5331



살비토레 메라키오 간츠니 플립 베라 백 상징적인 간츠니 메탈 장식을 중심으로 디자인한 세련된 세미프의 골드 체인 숄더백, 드레시한 룩은 물론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다. 20.5X17cm 1백95만원, 문의 02-3430-7854 에디터 권유진



Giorgio Armani

일반적인 수트 무게의 2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착용감이 특징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소재와 인감, 버튼 스타일, 실루엣은 물론 라벨 유형과 바지 주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이 끝난 후 데일리 비즈니스 웨어로도 완벽한 실용성을 갖추었다.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앙도 소재 수트 2백57만원, 화이트 코트 셔츠 57만원, 스트라이프 실크 타이 31만원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문의 02-549-3355



Brioni

세계 최고의 명품 맞춤 정장 타이틀을 지닌 브리오니는 체형에 따른 사이즈 수정은 물론, 취향에 맞춰 라벨과 인감, 버튼, 포켓 위치 등 세세한 디자인까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형적인 블랙 티셔츠 수트에서 벗어나 좀 더 대담한 컬러와 패턴을 즐기고 싶은 남성에게 추천한다. 울, 실크로 제작한 그레이 컬러 수트 8백50만원, 강염 체크 셔츠 98만원, 체크 패턴 타이 42만원 모두 **브리오니**, 문의 02-3274-6483



The Tiffany Setting

결혼반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티파니 세팅 링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가드 링을 매치하면 모던한 웨딩 링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왼쪽부터)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둘러 광채를 극대화한 티파니 세팅 링, 플라타늄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클래식한 티파니 임브레이스 밴드 링, 'Love' 텍스트가 선명하게 양하는 티파니 피카소 러브 링 모두 **티파니**.

Tiffany T Two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티파니 T 컬렉션 링의 두께를 줄여 더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는 티파니 T 투 내로우 카를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T 모티프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방법에 따라 다른 느낌을 지어낸다. 모두 **티파니**.



High definition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뿐 아니라, 웨딩이 끝난 후 특별한 날 꺼내 입을 수 있는 근사한 수트 한 벌은 필수다. 취향과 여유를 갖춘 당신을 위한 최적화된 테일러링 수트 브랜드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elieve in Love

사랑의 서약, 블루 박스에 담긴 티파니의 웨딩 링이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om Ford

고객이 직접 원단은 물론, 수트의 라이닝과 버튼, 이니셜 임브로이더리 위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 톰 포드는 MTO와 MTM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취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되어줄 듯. 유니크한 소리 포켓 디테일의 재킷이 돋보이는 수트 6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70만원대, 멋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줄 체크 패턴 타이 30만원대 모두 **톰 포드**, 문의 02-6905-3534



Ermenegildo Zegna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치 신장의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신체 치수 측정에서 시작되는 에르메네지갈도 제니의 수미주라 서비스. 총 4백50여 가지 소재, 1백여 가지 모델과 디테일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제작할 수 있어 한번 경험하면 나만을 위해 최적화된 테일러링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최상위 품질의 메리노 울 원단을 사용한 이글람 마이크로 셔츠 3백39만원, 블루 셔츠 49만5천원, 블루 패턴 실크 타이 27만원 모두 **에르메네지갈도 제니**, 문의 02-518-0285 에디터 **이지연**



스타일리스트 유영정 이나스틴 이서영, 김은서

● sponsored by TIFFANY&CO.



Tiffany Soleste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두 줄의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어 더욱 클래식하고 볼륨감 넘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솔리스트 링. 플라타늄에 세팅해 더욱 정교하다. 함께 매치한 가드 링은 역시 플라타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솔리스트 밴드 링. 모두 **티파니**.

Tiffany Harmony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성대한 플라타늄 밴드에 자리 잡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로맨틱한 티파니 하모니 링. 밴드 양 끝이 하나로 모여 균형감을 의미하는 티파니 하모니 비드-세팅 다이아몬드 링과의 조화가 아름답다.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화이트 케이프 디테일 이브닝드레스
가격 미정 YCH, 화이트 펌프스 가격
미정 스퀘어트 와이즈런, 심지어
모티브 이어링 38만원, 주얼 장식 링
23만원 모두 타니 by 마네니.



dress chic

유니크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이번 드레스 룩. *photographed by mok jung wook*



블랙 & 화이트 도트 패턴 긴소매 드레스
6백16만원 발렌티노, 비즈 장식 블랙 펌
스타킹 가격 미정, 스티드 장식 펌프스
1백17만원 모두 발렌티노 기모바니,
라인스톤 후프 링 9만8천원 캄미앙루스.

그린 컬러 레더 드레스
가격 미정 **셀빈노**,
블드한 골드 이어링
80만원 1064 STUDIO.

EXIT



블루 컬러 슬릿 롱
드레스, 화이트 앵글부츠,
진주 드롭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EXIT



네이버 컬러 플리츠 드레스,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주얼 장식 스트랩 힐
2백10만원대 로저 비비에.



레이스 디테일 블랙 드레스
5백52만5천원, 핑크 컬러
핑크스 83만1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볼드한 화이트 이어링
11만8천원 켈리앙루스.

헤어 이영경
메이크업 김자현
모델 김성희
어시스턴트 문진호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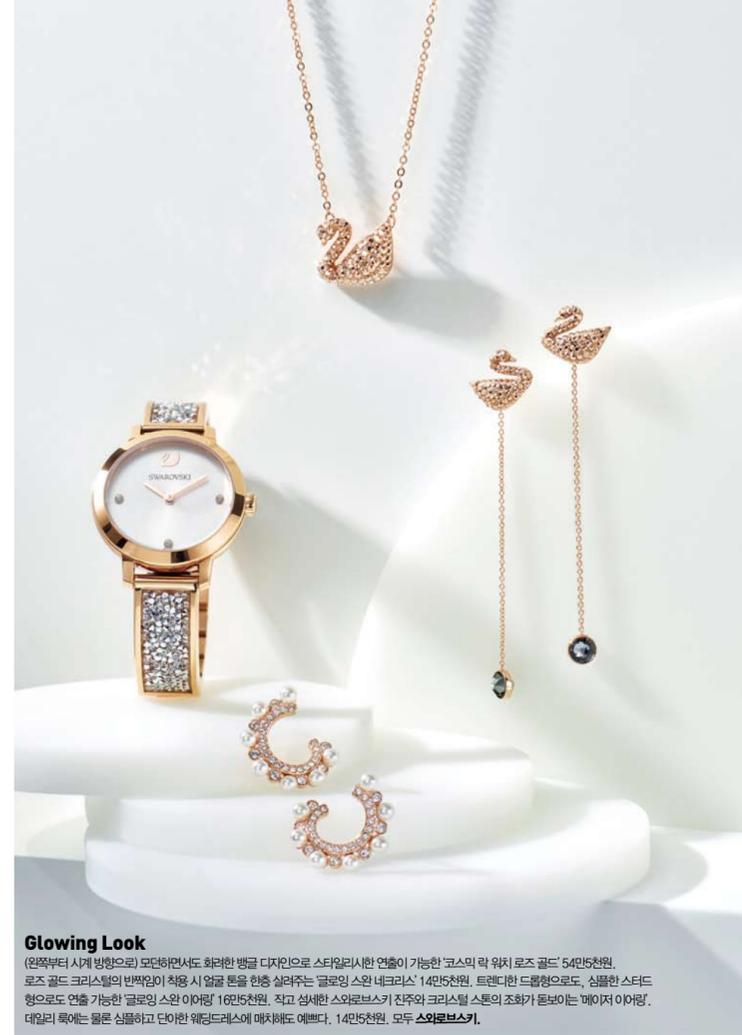
발렌티노 02-2015-4853
발렌티노 가문바니 02-6905-3610
켈리앙루스 070-8779-5090
나나번치 02-6905-3627
1064 STUDIO 070-7740-1064
타셀로 02-792-0523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노 02-6979-0607
YCH 02-798-6202
스튜디오 와이즈먼 02-6905-3991
타니 by 미네타니 02-3443-4164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다음 02-3490-010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지음베티스타 발리 02-6905-3357

부드럽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스완 모티브가 얼굴에 화사한 빛을 더해 온 입 주위라라는 애정이 있는 '글로벌 스완 컬렉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이는 로즈 골드 크리스탈이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면모를 더해줘 언제 어디서나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이어링 16만5천원, 네크리스 1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brilliant Moments

단아하면서 세련되고 우아한 룩으로 어느 자리에서나 돋보이고 싶은 예비 신부를 위해 준비했다. 특별한 날을 앞둔 그녀의 빛나는 순간과 함께할 스와로브스키의 특별한 제안.

©sponsored by SWAROVSKI



Glowing Look

(왼쪽부터 시계 방향) 모던하면서도 화려한 핑클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한 '코스믹 락 워치 로즈 골드' 54만5천원. 로즈 골드 크리스탈의 반짝임이 착용 시 얼굴 톤을 한층 실려주는 '글로벌 스완 네크리스' 14만5천원. 트렌디한 드롭형으로도, 심플한 스타드형으로도 연출 가능한 '글로벌 스완 이어링' 16만5천원. 작고 섬세한 스와로브스키 진주와 크리스탈 스톤의 조화가 돋보이는 '메이저 이어링'. 데일리 룩에는 물론 심플하고 단아한 웨딩드레스에 매치해도 예쁘다. 1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Modern Look

(왼쪽부터 차례대로) 꽃과 옥수를 타고 흐르는 실루엣이 아름다운 '개노피 롱 이어링 & Y 네크리스'. 크기가 각기 다른 스와로브스키 핑클 크리스탈 스톤의 조화가 맛스러운 룩을 완성한다. 각 16만5천원. 섬세하고 정교한 세공을 통해 완성한 크리스탈 스톤 다이얼과 2018 F/W 키 트렌드인 메시 스트랩이 만나 세련된 느낌을 선사하는 '오피아 노바 메시 워치 로즈 골드' 72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권유진



제품사진: 박진주





Portrait of lady

타사키(TASAKI)를 새롭게 이끌어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이 그려낸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

여성의 영원한 동반자,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얼굴을 표현해낸 프라발 구룽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바로 '진주가 떠오를 만큼, 타사키는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진주를 이미지에 맞게 자유자재로 다루며, 진주도 패셔너블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제껏 하이 주얼리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주의 반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담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것. 이러한 타사키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을 영입하며 다시 한번 진주 영역에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질 전망이다. 프라발 구룽은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로, 현재 뉴욕에서 가장 핫한 패션쇼의 주인공이기도. 또 컬러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그는 세계적인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와도 협업한 이력이 있을 만큼, 과감한 컬러 사용이 주무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며 디자인의 재기 발달한 시기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타사키의 새로운 얼굴이 궁금하지 아니한가. 지난 6월 논현동에 위치한 모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타사키 아틀리에(TASAKI Atelier)'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타사키 아틀리에 컬렉션의 테마는 바로 '초현실주의다. 초현실주의는 1920년 파리에서 시작된 예술운동으로, 이는 오늘날 여성의 관심을 강조하는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재탄생되었는데, 프라발도 그중 한 명이다. 실제로 프라발 구룽은 그의 패션 컬렉션에서도 'Future is Female(여자가 미래다)'이라는 슬로건을 담은 티셔츠를 선보이기도 하며 우먼 파워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 그는 풍부한 자기표현과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자연에서 느껴지는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움은 마치 진주를 찾기 위해 인어가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에게 이 같은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은 현실과 초현실주의 사이에 공존하는 꿈과 갈조"라며 바다와 진주를 모티브로 탄생시킨 타사키의 매력적인 주얼리 라인을 공개했다. 매혹적인 진주가 탄생하는 곳, 코브(cove)에서 영감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에 진주가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디자인의 진주 드롭 이어링과 광활한 바다에 떨어지는 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진주를 폭포의 물방울로 표현한 네크리스, 바다 위에 등등 떠 있는 구 모양의 부이(bouy)를 형상화한 디자인까지, 착용하는 사람에게 화려한 광채와 여성성을 선사하는 매혹적인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빛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길 원한다면 타사키 아틀리에 컬렉션을 눈여겨보길.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이지연**



1,2 타사키 아틀리에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3 2018 프라발 구룽 S/S 컬렉션 룩. 4 진주를 부드럽게 감싼 오프로라 이어링.



interview with Prabal Gurung (타사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Q1 타사키에서의 첫 컬렉션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다. 맞아요. 한국은 언제나 꼭 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방문하게 되어 매우 설렘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Q2 서울 어디를 가보았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창덕궁이에요. 그 인은 마치 시대를 초월한 듯한 전통 그 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문밖을 나서자마자 현대적인 디지털 시그널이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더군요. 마치 '올드 투 뉴(old to new)'로 이어지는 듯 묘한 매력이 느껴졌죠. 이처럼 자연과 첨단이 한껏 어우러진 모습에서 또 다른 영감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타사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스킬을 발휘해 조화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Q3 당신은 타사키를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물론 알고 있었죠. 진주에 관한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하이엔드 주얼리 캠페니로 알고 있었습시다. '엘레강스', '하이 컬러리', '리얼리 하이 파인 주얼리' 이 키워드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사키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 타사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추구하는 패션 레이아웃과 동일한 밸류와 아이덴티티를 지닌 브랜드와 일하게 되어 더욱 기뻐어요. Q4 패션과 주얼리는 엄격히 따지자면 철저히 다른 영역이다. 당신만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패션으로 표현할 때와 주얼리를 통해 그려낼 때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가? 주얼리와 패션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일해요. 이트나 음악, 영화,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니까요. 다만 다루는 재료 면에서 주얼리는 골드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소재로 하고, 패션은 패브릭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다르죠.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아 스케치하는 과정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패션과 주얼리에 경계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 이상의 프로세스를 위한 스텝에는 각 영역에 맞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니까요. Q5 당신의 주무기가랄 수 있는 특별한 컬러 사용 등 고유의 패션적 요소를 타사키 주얼리를 통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다. 컬러의 힘은 대단해요. 바라고 몸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재미,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고객들도 타사키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진주와 함께 블루 사파이어 등 컬러 스톤을 그라데이션 팔레트로 세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Q6 당신이 향후하면서, 타사키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하다. 타사키는 이미 하이 컬러리와 엘레강스, 타임리스 뷰티 그 자체인 거 같아요. 저는 여기에 모던리티를 부여하고 싶네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쿨한 아름다움이지요. 특정 나이대에 머물러 있던 진주의 노블한 이미지를 깨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여성들도 환호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저의 2018 S/S 컬렉션과 2018 옛 갈라를 통해 보았듯이, 기존 타사키가 선호해온 인물은 물론, 저지 하디드와 벨라 하디드 같은 영하고 핫한 셀러브리티들이 타사키 주얼리를 착용하고 나오기도 했죠. 특히 저지 하디드가 착용한 이어카프는 기존 파인 주얼리의 에티튜드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엘레강스하면서도 쿨한 분위기를 자아내 그 자체로도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제품이에요. 이처럼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좀 더 유용하고 쿨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진: 프라발 스톤리드

sponsored by TASAKI



Nacreous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통해 다양하게 퍼지는 우아한 빛을 18K 화이트 골드와 타사키만의 시그니처 빛깔 칼라인 SAKURAGOLD™를 통해 깨끗하고 선명한 라인으로 디자인한 나크레우스 컬렉션. 마치 여러 겹의 머더오브펄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컬러들의 반짝임을 표현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에 화려함을 더해줄 드롭 이어링, 독특한 레이어드 디자인의 더블 핑거 링, 착용 시 손에 은은한 광채를 선사할 핸드크림 브레이슬릿 모두 타사키.

Waterfall

높은 곳에서 강하게 떨어지는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워터폴 컬렉션. 18K 화이트 골드 보드에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아코야 진주는 광활한 바다에 떨어지는 폭포를 표현하고,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는 듯한 SAKURAGOLD™는 태양을 형상화했다. (왼쪽부터) 움직임에 따라 चल링거리는 진주알이 매력적인 네크리스, 드롭 이어링 모두 타사키.

•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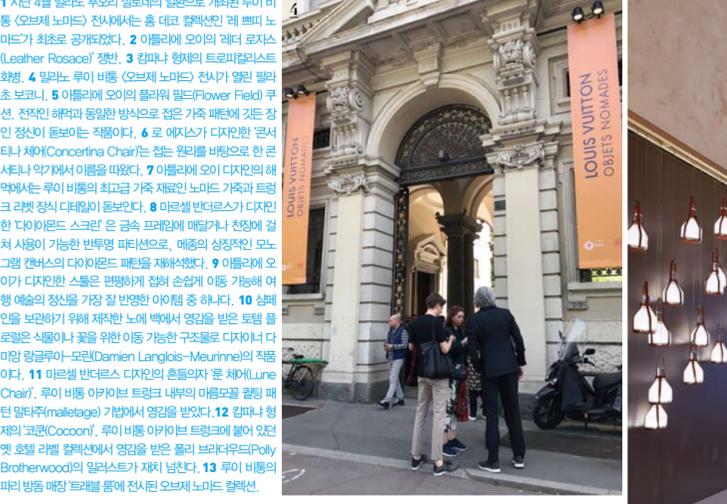
Inspiration meets Artistry

프랑스 문호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도 말했지만 여행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자신이 세계에서 얼마나 작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협업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평을 넓히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순간이 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내로라하는 산업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장인 정신과 수준 높은 공예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 컬렉션을 빛어내는 창조적 협업이라면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봄 밀라노를 수놓은 루이 비통의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행사와 더불어 오는 9월 국내에서도 주문 가능한 한정판 가구와 홈 데코 컬렉션을 소개한다.

여행은 휴가 아니며, 대개는 휴식의 장만대리는 빼 있는 표현이었다. 사실 꿈같이 생겨보면 우리는 육신의 편함을 피하려고 여행을 계획하지 않는다. 여행을 해보면 상황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어디로 향하는 이유는 아마도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혹은 언젠가 여행을 계기로 유연하리다 스치는 영감을 포착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노닐을 만들려는 깨달음을 얻은 기약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콩고에 가기 전에 단지 동물이었을 뿐”이라는 말을 남긴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에게 찾아온 강렬한 각성은 아닐까라고 믿는다. 지구촌을 누비는 항해사이자 선장, 작가의 삶을 산 콘래드의 탐험심에 감히 견줄 수는 없었지만 필자에게도 아직까지 여행이나 출장은 주로 배움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특히 그리운 대상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는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파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내세표를 깨우는 발견이나 생생한 에피소드로 남는 경험담이기에 아무래도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에서는 풍경보다는 사람이(혹은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는 그 무엇이다). 멋진 도시를 보려고 8km를 가느나, 한 사람의 환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160km를 가는 편이 낫다는 누군가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천하의 절경일지라도 그 순간을 나눌 이가 부재하거나 스스로에게 특히 더 소중하게 느껴질 의미가 없다면 감흥이 확연히 덜하지 않은가.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봄 다시 찾은 밀라노는 꽤 익숙한 도시인데도 좀 특별하게 다가왔다. 꽤 뻑뻑한 일정이었지만, 영감 어린 스토리를 선사해준 크리에이티브들과의 만남 덕분이었다. 자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와 위엄을 자랑하는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Saloni) 기간에 정의 행사를 뜻하는 푸오리 살로네(Fuori Salone)를 무대로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과 팔자는 협업 프로젝트인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전시, 가구나 인테리어 디자인 세계를 좀 안다면 귀를 쫓긋할 만큼 명성이 높은 데다 작품 세계 자체도 흥미로운 다국적 크리에이티브를 한자리에서 모이게 한 이 행사는 고이한 미를 품은 공간인 팔라초 보코니(Palazzo Bocconi)에서 열렸다.

장인 정신과 크리에이티브의 상상력이 만나 빛어내는 노마드의 미학
 ‘오브제 노마드’라는 단어가 시사하듯이 팔라초 보코니에서 전시한 가구 디자인 컬렉션은 ‘이동’과 ‘이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 유목 문화를 공동 주제로 삼고 있다. ‘여행 예술(Art of Travel)’이라는 1백60년 넘게 이어온 루이 비통의 브랜드 철학과 잘 어울리는 영리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섬세한 소재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미학, 오랜 세월 축적된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노하우로 빛어낸 만큼 완성도가 단연 눈에 띄는 한정판 가구 컬렉션인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부터 국적을 가리지 않고 걸출한 디자이너들과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이 낳은 거장 캄파냐 형제(Campana Brothers), 영국의 스타 디자이너 듀오 바버 앤드 오스거브(Barber and Osgerby), 디자인계 열광으로 불리는 스웨인 출신의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 자취와 실험적인 연두기 돋보이는 스위스 3인조 그룹 아틀리에 오이(Atelier Oï), 네덜란드의 재기 넘치는 천재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르스(Marcel Wanders), 일본 디자인계의 살아 있는 신화로 통하는 요시오카 도쿠진(Tokujin Yoshioka), 요즘 상송 거도를 달리는 로 에지스(Raw Edges) 등 그야말로 정평한 이름이 목록에 올라 있다. 지난해에는 환상적인 색채 감각을 지닌 프랑스의 안테미아 디자이너 인디아 마드바(India Mahdavi), 그리고 올해는 홍콩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안드레 푸(Andre Fu)가 새롭게 합류했다. 올해 밀라노 행사에는 오브제 노마드 가구 컬렉션이 아니라 정교한 공예 기술이 잘 드러나는 홈 데코 컬렉션인 ‘레 Petit 노마드(Les Petits Nomades)’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꽃병과 수납 바구니, 거울 등 앙증맞으면서도 세련미를 풍기는 각종 소품으로 이뤄진 컬렉션이다. 레 Petit 노마드 컬렉션이 기존의 오브제 노마드 가구 컬렉션과 흥미롭게 어우러지거나 시너지가 절로 나오는 듯했고, 덕분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치 팔라초 보코니로 향하게 했다. 첫해를 맞이한 레 Petit 노마드 컬렉션에는 캄파냐 형제, 아틀리에 오이,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 마르셀 반더르스 등 4팀이 참여했다. 밀라노 전시 첫날인 4월 17일에 직접 행사장을 찾은 3명의 크리에이티브와 살아 여행, 디자인의 미학에 대해 각각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남미가 낳은 별 중의 별, 캄파냐 형제
 브라질 태생의 캄파냐 형제는 남미에서 배출한 최고의 형제 아티스트다. 첫눈에 봐도 강렬한 에너지와 자유로움이 넘치고, 때로는 그려쓰크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 특유의 디자인 언어. 건축 세계는 많은 골수 팬에게 브라질의 문화, 디자인에 대한 동경과 관심을 절로 품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오라를 뽐내다. “형인 움베르토(Umberto)가 해외 출장을 주로 다니고, 저는 대개 상파울루에 머물면서 리서치하는 걸 좋아해요.” 열렬하고 소탈한 성격이 외모에서도 단연 드러나는 페르난도(Fernando) 캄파냐는 밀라노를 찾은 여객이 ‘고향 지킴이’인 자신으로서의 너름 흔치 않은 행복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전 올해 발표한 자신들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캄파냐 형제는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에 속하는 스윙 체어 ‘코콘(Cocoon)’과 풍성한 탈착식 쿠션의 조함인 인상적인 모들식 소파 ‘봄보카(Bomboca)’를 생강 빛깔한 푸크시아(fuchsia)색으로 단정해 선보였고, 레 Petit 노마드 컬렉션으로는 가족 화병을 내놓았다. 영어로 ‘트로피칼리스트 베이스(Tropicalist Vase)’라 명명한 이 소품은 언뜻 웅의 비늘인가 싶을 만큼 화려한 느낌을 선사하는데, 페르난도의 설명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꽃인 퀘스날리아(Quesnalia)와 브



1 지난 4월 밀라노 푸오리 살로네의 일환으로 개최된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전시에서는 홈 데코 컬렉션인 레 Petit 노마드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2 아틀리에 오이의 레드 로자스(Leather Rosace) 장인. 3 캄파냐 형제의 트로피칼리스트 화병. 4 밀라노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전시가 열린 팔라초 보코니. 5 아틀리에 오이의 플라워 필드(Flower Field) 쿠션. 전적인 레퍼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은 가죽 패드에 갖은 것인 장신기 돋보이는 작품이다. 6 로 에지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콘서트나 체어(Concertina Chair)는 얇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콘서트나 악기에서 영감을 따왔다. 7 아틀리에 오이 디자인의 여행 액세서리는 루이 비통의 최고급 가죽 재질인 노마드 가죽과 트렁크 크라프트 가죽이 대담히 만나 있다. 8 마르셀 반더르스가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스킨’은 금속 프레임에 메탈과 천장에 걸 수 있는 장신기 가능한 반투명 피넛으로, 메종의 상징적인 모노그램 캔바스의 다이아몬드 패턴을 재해석했다. 9 아틀리에 오이가 디자인한 스톨은 편안하게 접혀 손잡이 이동 가능해 여행 예술의 장소를 가장 잘 반영한 아이템 중 하나다. 10 스페인을 보편하기 위해 제작된 노예 백에서 영감을 받은 도플을 로얄한 스톨이나 꽃을 위한 이동 가능한 구조물로 디자인하다 마담 랑글루아-메르(Damen Langlois-Meurinne)의 작품이다. 11 마르셀 반더르스 디자인의 출몰의자 체어(Lounge Chair). 루이 비통 아카이브 트렁크 내부의 미용품을 팔링 페틴 말타주(maltage)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다. 12 캄파냐 형제의 코콘(Cocoon). 루이 비통 아카이브 트렁크에 붙어 있던 옛 호텔 라벨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폴리 브라더우드(Poly Brotherhood)의 알린스트가 재기 넘친다. 13 루이 비통의 파리 빌통 매장 트렁크 옆에 전시된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



14 로멜리아드(bromeliad)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자연의 원시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캄파냐 형제는 오랜 세월 공감을 맞춰왔지만, 사실 전공은 물리학과 인성도, 성격도 다르다. ‘차이온 도시 남자’ 같은 분위기를 지닌 움베르토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조각을 즐겨하다가 디자이너로 전향한 경우이고, 페르난도는 건축을 공부했다. 여덟 살 차이는 형과 자신은 실제로도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음악처럼 서로를 보완해준다고 설명하면서 여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흥미로운 고백은 페르난도 캄파냐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는 것. ‘당시(정치적으로 독재 시기를 겪었던 브라질 사회에서는 배우를 커리어로 선택하기 힘들었어요. 공산주의자로 간주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세트를 접할 수 있는 건축을 했죠. 하하.’

팔색조 매력을 지닌 마르셀 반더르스의 끝없는 진화
 네덜란드 가구 디자인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인지도 높은 브랜드 모오이(Moooi)의 공동 창립자이자 아트 디렉터인 마르셀 반더르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모더니즘의 형식적인 고정함에 반기를 든 이른바 ‘안티 디자인’과 그 주요 세력인 이탈리아의 엘미스 그룹을 옹호했던 만큼 그는 장식적이고 우아한 화려함에 과하지 않은 재가 묻어나는, 감성 돋보이는 디자인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디자인을 남았다는 평도 듣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풍부한 자신을 지닌 네덜란드의 문화 예술 토양을 바탕으로 다채(Dutch) 디자인 특유의 실험까지 겸비한 채 자신만의 스펙트럼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스스로도 ‘컬렉션(collect)’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글로벌하게 다양한 고객과 일하는데, 그들은 저마다 역사와 역량이 다르잖아. 덕분에 저마다 다양한 부분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의 장점으로 비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했다. “디자인들은 스마트하고 자비한 걸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비보 같지만 아름다운 작업이랄까 진정한 ‘하피 엔탈리전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똑같은 디자인에 예게 비보 같은 질문을 던져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초거부터 할까예은 오브제 노마드미랄로(가죽으로 된 휴대용 가구는 참에서 언뜻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poetry)를 창조해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팔링 페틴 가죽을 누울 수 있는 휴대용 의자지만 돌돌 접으면 가방이 되는 첫 작품 ‘라운지 체어(Lounge Chair)’는 ‘발상(ideation)’ 과정에서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지만, 그 덕분에 그가 ‘트랜스포머(transformer)’라고 부르는, 혁신과 낭만을 동시에 품은 독특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뿌듯해했다. 올해 그는 거취학적인 디자인의 귀은 다국적재량, 거울로 활용될 수 있는 소품인 ‘다이아몬드 미러(Diamond Mirror)’를 레 Petit 노마드 컬렉션으로 선보이면서 ‘다이아몬드 미러’의 미학을 빛과 어둠의 대비로 표현해낸 설치 작품까지 내놓아 시선을 끌었다.

아틀리에 오이, 재료의 연금술사
 라 노브렐(La Neuveville)이라는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인연으로 친구끼리 3인조 디자이너 그룹을 만든 아틀리에 오이. 이들 삼총사는 마르셀 반더르스의 뚜렷히 구분되는 성향을 지녔다. 인간들의 스토리를 사적으로 삼는 데는 마르셀과 달리 아틀리에 오이는 철저히 ‘재료(material)’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저희 공통분모는 처음부터 재료에 대한 호감이었어요. 27년 전쯤 디자인을 하려고 셋이 모였을 때부터요.” 아틀리에 오이의 멤버 중 하나인 오렐 아예(Aurel Aebi)는 1991년 아르망 루이(Armand Louis), 파트리크 레이몽(Patrick Raymond)과 함께 그룹을 결성했을 당시에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세 멤버는 매달 팀 차원에서 다 같이 모여 새로운 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회의를 한다고 한다. “순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희는 드로잉을 먼저 하는 대신 흥미로운 재료를 고르고,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 공리하죠.” 오렐은 루이 비통과 일하기 전부터 가족을 다루는 데도 이미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하며, 루이 비통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아틀리에 공방의 협업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가족으로 멋스럽게 짠 햄락(Hamrock)이라는 루이 비통의 트렁크 제작 기술에 이어 더 기법을 적용해 손잡이 기둥처럼 접을 수 있는 가족 소파의 스톨(Stool)이 탄생했다(베스트셀러 중 하나). 아마도 가장 ‘열일하는’ 디자이너 그룹으로 둘째가라면 서슴치 않을까 싶은 아틀리에 오이는 이번에는 15가지 색상의 가죽 꽃으로 이뤄진 오리가미 플라워,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가지 색의 양털을 지닌 가죽 화병 레드 로자스(Leather Rosace) 등을 레 Petit 노마드 컬렉션으로 내놓았다. 아틀리에 오이의 작품이 재료의 미학에 초점을 맞췄고 해서 스토리의 소중함을 간파하는 것은 아무(실제로 그들의 작품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강성이 문에는 유일일 것이다). 노마드 여행이라는 콘셉트는 특히 스토리텔링의 강점이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루이 비통에서는 여러 항목을 적은 지루한 재킷을 주지 않고 그냥 ‘노마드’라는 주제만 주고 자유롭게 나왔어요. 신기술에도 가족이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해 얘기했죠. 노마드 프로젝트에는 각각의 디자인에 스토리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변질되어 안타까운 여행의 본질이라고요.” 글 코렉시(밀라노 현지 취재)

for the Better Life

우수한 트레이너와 강사진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에너지 충전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웰페리온을 소개한다.

서울의 중심 용산구 한남동 한강변에 위치한 현대하이퍼리온 주상 복합 아파트 내 고급 스포츠 클럽 '웰페리온'이 지난 4월 개관했다. 약 9,586㎡(2천9백 평)의 프리미엄급 종합 스포츠사인 웰페리온은 7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건축 인테리어 외에 수영장 및 사우나, 배관, 냉난방 설비까지 모두 교체해 최신 사우나 시설과 쾌적한 운동 공간을 갖춘 최고급 멤버십 스포츠 클럽이다. 수영장 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아의 테크노짐을 도입했다. 골프장 시설로는 골프존의 GDR 스크린 장비를 갖춘 연습 타석과 스크린 룸을 갖추었다. 또 국제 규격의 스쿼시 코트와 연습용 코트, 필라테

스, 요가, 라인댄스 등을 할 수 있는 GX를 마련해 선택의 폭이 넓다. 이외에도 K-뷰티의 선두 주자로 잘 알려진 스킨 에스테틱의 본에스티스, 청담동과 일본에서 활동해온 경력 10년 이상 전문 디자이너들의 헤어 살롱 & 비버숍인 부티부, 네일 샵, 카페 등을 갖춰 외부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한 공간에서 운동과 뷰티 케어, 휴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멤버십 클럽이다. 또 기존 멤버십 센터와 달리 입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연회비만 있는 멤버십 센터로, 8월 말까지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문의 02-6261-1200



Prestige Beauty

양가 어머니께 드리는 화장품 예민은 브랜드의 프레스티지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부 본연의 빛을 밝혀주고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로열 인티메이징을 실현할 비집 자윤 크림 60ml 23만 원대, 천연 천초 산삼 성분을 담은, 산삼이 품고 있는 양기를 피부에 고스란히 전해줄 환유고 60ml 75만 원대 모두 **더히스토리 오브 후**, 문의 080-023-7007, 엄선한 원료와 데코르테인 기술력을 결합해 피부에 건강한 생명을 불어넣어줄 AQ 밀리오리더 인텐시브 크림 45g 1백58만 원대, 피부에 풍부한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럭셔리 농축 세럼 AQ 밀리오리더 더블유 컨센트레이션 나이트 30mlX2 68만 원대 모두 **데코르테**, 문의 080-568-3111



Precious Special Care

웨딩 데이에 맞춰 피부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고귀한 성분을 담은 스페셜 뷰티 케어를 위한 셀렉션. (위부터 아래로) 달콤한 생량의 마이크로 크리스탈을 함유해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디올 프레스티지 로 슈크레 드 고마주 150ml 13만 3천 원, 고농축 1만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 필을 담은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필 드 로즈 오일 세럼 30ml 29만 5천 원 모두 **디올**, 문의 080-342-9500 인소를 양기 위해 10톤의 광석이 필요한 순수 플라타늄을 고스란히 한 병에 담은, 플라티늄 레어 벨루아 나이트 엘릭시어 20ml 1백52만 3천 원, 눈가 노화의 신호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스킨 케어 이 리트스 나이트 크림 20ml 44만 4천 원 모두 **라프레리**, 문의 080-511-6626

Beauty it list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디테일을 위한 스페셜 케어 제품뿐 아니라 예비 신부와 양가 어머니께 선물하기 좋은 예단 라인까지, 당신이 눈여겨봐야 할 브라이덜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on Voyage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겨냥해 선보이는 오스트리치필로우 고(Go) 목베개, 당신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일명 '타조 베개'라고 들어보았는가?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자는 모습에서 착안한 이 베개는 모자 형태로, 베개를 머리에 써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에 엷드려 자는 사람을 위해 얼굴 쪽에도 폭신한 쿠션이 있고, 귀 위로는 손을 집어넣을 공간까지 마련한 기발하고도 독특한 아이디어 덕분에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바로 이 타조 베개로 유명한 오스트리치필로우의 스페인, 스위스, 영국에 사무실을 둔 크리에이티브 전문 그룹 'Studio BANANA'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으며, "Welcome to the Napping

Revolution'이라는 모토 아래 현대인의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낮잠과 관련된 유틸리티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조 베개의 유명세를 잇는 핫한 여행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여행용 목베개 '고(Go)'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제품은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고급 메모리 폼 충전재, 비스코스과 엘라스토머 혼합 소재를 통해 기존 목베개와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한다.

단순한 U자 형태의 펜스 제품이나 깃스 형태로 목을 고정하는 제품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든 편안하게 목을 기댈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 누구든 자신의

목에 맞도록 손쉽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외부 커버만 벗겨낼 수 있어 세탁하기 쉽고, 별도의 파우치를 제공해 여행 시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오스트리치필로우 고 여행용 목베개는 미드나잇 그레이, 딥 블루, 블루 리프 등 세 가지 컬러로 판매하며, 가격은 7만 2천 원(부가세 포함)이다. 새롭게 출시한 고 여행용 목베개를 포함해 기존 오스트리치필로우 오리지널(Original) 타조 베개, 라이트(Light) 안대 쿠션, 미니(Mini) 책상 베개를 포함한 전 제품은 오스트리치필로우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ostrichpillow.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70-7503-3107



Luxury Wedding Set

데일리 케어와 영양 공급, 집중 케어가 필요한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설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마지르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라니도라리가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단 한 방울만으로도 강력한 트리트먼트를 선사하는 피부 재생에 탁월한 바닐라 플라니도라리 성분을 함유한 수블리마지르 엑스트라 14ml 63만 8천 원, 바닐라 플라니도라리 워터 미스트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는 수블리마지르 브림 18mlX3 32만 1천 원, 피부 재생 효과에 탁월한 마그네슘 워터 복합체를 함유, 마치 자석처럼 수분 분자를 끌어당겨 피부에 밀착시켜주는 수블리마지르 로시옹 수프렐 125ml 15만 8천 원,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감을 자랑하는 크리미한 텍스처로 부드러운 피복결, 우아한 광채를 선사하는 수블리마지르 엑스트라 드 크림 50ml 65만 7천 원 모두 **샤넬**, 문의 080-332-2700



Best-Iconic Beauty

브랜드를 대표하는 성분과 기술력을 담은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뷰티 아이템.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윤조에센스의 미스트 버전으로 외부 환경 때문에 지친 피부를 더욱 간편하게 케어해줄 윤조에센스 미스트 110ml 7만 원대, 적층의 생량력을 담아 어느 각도에서도 매끄럽고 탄력 있는 눈가 피부를 선사할 진설 아이 에센스 20ml 27만 원대 모두 **설화수**, 문의 080-023-5454 피부에 닿는 즉시 흡수되어 수분과 영양을 빠르게 채우며 피부 속 잔여물을 활성화해 탄력 있는 젊은 피부로 되돌려줄 제-피코 프로비오티크스 에센스 75ml 18만 9천 원대, 랑콤 심미에서 추출한 두 가지 특별 활성 인자를 통해 피부 노화를 개선해줄 압솔류 엑스트라 엠플 에센스 30ml 52만 원대 모두 **랑콤**, 문의 080-001-9500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editor's Pick

웨딩 데이뿐 아니라 하니문까지 배려한, <스타일 조선타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케어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트리 셀룰러 소프트닝 앤 밸런싱 로션** 여름철 더운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해 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 미지 에센스처럼 피부 전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전달하는 미네랄 C와 E까지 함유했다. 항염 작용까지 해 자극받은 피부결을 진정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250ml 22만9천원. 문의 080-511-6626 *_by 에디터 배미진*

볼리 1803 덴탈 플로스 소성하고 싶은 욕구가 들게 하는 매력적인 패키지로 기판 속에 휴대하기 좋은 볼리 치실, 유가농 코트 등으로 만들어진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작용하며, 일반적인 화이트닝 가산 성분으로 치아에서 빠져 나온 이물질들을 확인하기 쉽다. 사용할 때 은은한 사과 향이 배어나와 상쾌한 느낌을 준다. 3g(50cm) 2만2천원. 문의 02-511-3439 *_by 에디터 이지연*

타피로 로즈 캔들 신혼의 로맨틱한 무드를 고조시킬 향으로 다할 나이 없이 완벽한 로즈 향을 풍긴다. 초를 켜는 동시에 여러 가지 향미 향을 맡겨 마치 커다란 장미 부케를 한 아름 안은 듯 풍부하고 관능적인 플로럴 향이 온 공간을 채운다. 최대 60시간까지 태울 수 있어 실용적이다. 190g 7만9천원. 문의 02-6002-3230 *_by 에디터 이지연*

비비 브라운 크라쉬드 립 컬러 카바나 출시 후 품질 사해를 일으킨 MLBB 립 컬러 카바나. 꿀 톤, 핑 톤 모두에 잘 어울리는 톤 다룬된 컬러로 차별화하면서도 생기는 룩을 연출해주어 웨딩룩에는 물론 데일리 립 컬러로 사랑받을 것. 부드러운 세미 매트 텍스처가 특징으로, 입술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밀착되고 지속력도 한 수위이다. 3.4g 3만9천원. 문의 02-3440-2781 *_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디펜션 얼림 드 샤넬 마스크라 10 노보르 푸어 블랙 레딩 데이에 율령 눈물에도 번짐 없이 또렷하고 볼륨감 있는 속눈썹을 완성해줄 마스크라. 아시아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제품으로 볼륨, 길이, 컬링과 신장함까지 모두 면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짙은 속눈썹에도 완벽히 밀착해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하고, 스머지 방지 포폴라를 적용해 습기나 열, 물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6g 4만4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권유진*

더 하스틀리 오보 후 비침 자음 크림 결혼식 당일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비침 자음 크림은 피부 자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담아, 피부 본연의 빛을 밝혀주는 로열 인티에이징 크림이다. 결혼 전 예비 신부는 물론 어머님도 함께 꾸준한 관리하기 좋다. 60ml 23만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이지연*

자넷시 프리즘 리브르 럭셔리 패션 하우스 자넷시의 패션 코드와 감성을 담은 코즈메틱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스타일리시한 패키지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하지만,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메이크업 성능에 감탄할 것. 누드 톤의 네 가지 컬러 루스 파우더로 구성된 페이스 파우더로, 파프도 두들기면 이내 가라앉아 한데 어우러져 어느 피부 톤이나 화사한 톤 업 효과를 선사한다. 보습보습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지만 결코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는다. 3gX4, 8만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권유진*

칼리안 클라이트 인 에센 해-루에 추천하고 싶은 향수. 향은 들레 치고 향수의 케이스이자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는 주얼리 클라이트에서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했다. 시트러스 노트에 페퍼 베리, 코코넛 밀크가 조화를 이루는 향으로, 맑은 순간 관능적 타인은 표현하기 바로 따옴을 만들 이력적이다. 향수 이름처럼 로맨틱한 달빛 아래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뿌리고 싶은 향이다. 50ml 33만원. 문의 02-3440-2593 *_by 에디터 권유진*

프래쉬 헤스페리데스 그레이트프루트 플러 봄 여름철에 딱 어울리는 룩. 특히는 자음 향을 메인 노트로 한 시트러스 계열 향으로, 이미 두꺼운 미니아 층을 가느린 헤스페리데스 그레이트프루트 향수의 플러 볼 버전이다. 미니 클라지 백에도 속 들어가는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귀 뒤, 손목 등 간편하게 독특 발라 향을 리치할 수 있다. 10ml 3만5천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이지연*

데코르테 AQ 밀리오리엔 인텐시브 크림 피부 탄력 증진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입소문에 오랫동안 데코르테의 스킨케어로 자리 잡은 제품. 풍부한 텍스처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과 풍위 있는 향기가 매력적이다. 45g 1만5800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배미진*

다들 드림스킨 모이스트 & 퍼펙트 쿠션 유니버설 웨이트 000 모든 피부 톤에 사용 가능한 000 번을 부여받은 특별한 제품. 누-탄티드 세이드리는 콘센트로 색조 없이 스킨케어 효과로 피부를 감싼다. 여러 번 두들릴 필요 없이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가벼운 붉은 기와 모공, 반들거림을 케어할 수 있다. 15g 10만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배미진*

클레드벨 하이드라 파워 리프팅 세럼 가볍고 산뜻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 황금 추출물과 금실 플라센 추출물 등 피부 진정 성분도 많이 담겨 있다. 시아버터 성분 덕분에 보습력도 뛰어나다. 30ml 4만5천원. 문의 080-465-4650 *_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아이 앤드 체리 팔레트 이트의 **플론트 팔레트** 세터 에디션으로 출시한 나스의 새로운 팔레트는 브론즈빛이 도는 아이세도우 하이라임 블러시, 브론징 파우더 등으로 구성되어 밝은 빛에 아름답게 그을린 듯 건강한 매력적인 메이크업을 선사해줄 것이다. 또 뜨거운 여름이 지나 가을까지 커버 가능한 컬러로 구성했으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휴양지로 해-문을 계획 중이라면 눈여겨보자. 19.6g 7만9천원. 문의 02-6905-3147 *_by 에디터 이지연*



BEAUTY



실론

실론 LED 라이트 거울 2중 출시 실론은 보다 완벽한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LED 라이트 거울, 메이크업 미러와 미러 루미를 출시한다. 자연광과 백색광 2가지 타입의 LED 조명을 장착한 미러 루미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손잡이 거울을 거치대에 꽂아두면 자동 충전되며, 1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LED 라이트가 반영 거울에 내장된 메이크업 미러는 360도 회전 가능하며, 반대편에 5배 확대경이 있어 세밀하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도와준다. 문의 080-246-1234

랑콤 NEW 제-피피 안티-디크써를 아이 크림 랑콤은 총 37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으로 피부 미용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NEW 제-피피 안티-디크써를 아이크림을 출시했다. 부드럽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텍스처가 눈가에 빠르게 흡수되어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것은 물론, 환하게 개선해준다. 문의 080-001-9500



LIFESTYLE

볼보자동차

볼보자동차 터 뉴 XC40 볼보자동차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콤팩트 SUV, 터 뉴 XC40을 출시한다.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된 이 모델은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휴대용 무선 충전, 번들링주행 기술 등 미니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었다. 문의 1588-1777



맨온클레르



로로피아나



브리오니



브루넬로 쿠치넬리



콤데가르송 비아 델라 스피가

JEWEL&WATCH



리외트밀

리외트밀 올리비아 레브첸코 엠베서더 발탁 리외트밀은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올리비아 산수, 올리비아 레브첸코를 새로운 엠베서더로 발탁했다. 절대적인 정확성과 완벽한 기술, 최상의 힘, 그리고 무게중심에 중요한 놀이뛰기 중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올리비아 레브첸코는 앞으로 개최되는 강에게서 카본 TPT 소재의 FM07-01 오토매틱 레이디스 모델을 착용할 예정이다. 문의 02-512-1311

타사키 타사키 아틀리에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타사키는 논현동 모스 스튜디오에서 타사키 아틀리에 프레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초현실주의 테마를 바탕으로 바다와 잔류를 모티브로 한 이번 컬렉션은 최고급 잔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컬러 스톤으로 제작되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빛나길 원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타사키 아틀리에 컬렉션은 올리비아에 만-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스외로브스키 글로잉 스와 컬렉션 스외로브스키는 은은하게 빛나는 로즈 골드를 입은 새로운 아이코



스외로브스키

닉 스와 컬렉션, '글로잉 스와 컬렉션'을 출시한다. 혁신적인 포인티아지 기법으로 깔끔하고 우아한 실루엣에 크리스탈 광채를 더해,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어머부터 고급스러운 네크리스까지, 로맨틱하게 빛을 발하는 컬렉션을 선보인다. 문의 1661-9060

오메가 볼보 오션 레이스 뉴 타임피스 출시 오메가는 볼보 오션 레이스의 공식 타임피어로 활약해온 오메가의 역할을 기념하는 '볼보 오션 레이스 뉴 타임피스'를 출시했다. 45.5mm 사이즈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했으며, 볼보 오션 레이스 로고를 새긴 케이스 백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9900으로 구동된다. 1973년 최초로 개최된 유럽 세일링 이벤트를 기념해 오직 73피스만 한정 제작했다. 문의 02-511-5797

반클리프 아펠 라트르 콩트 드 그림 하이 주얼리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그림 형태의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2018 하이 주얼리 컬렉션, 라트르 콩트 드 그림 컬렉션을 공개했다.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컬러의 젠스톤을 사용해 동화 속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했으며, 모든 스톤의 중량과 투명도, 컬러, 형태와 소재의 아름다움을 엄격하게 선별해 매혹적인 컬렉션을 완성했다. 문의 00798-852-16123

에르메스 까레 큐어 워치 에르메스는 우아한 다이얼과 스트랩의 조합이 돋보이는 '까레 큐어 워치'를 선보인다. 스틸 소재의 정사각형 프레임에 폴리싱 마감 또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완성한 이 모델은 도박가족 딥 블루 스트랩을 갖추어 더욱 세련된 룩을 연출해준다. 문의 02-542-6622

타피나 타피나 T 투 내로우 링 타피나는 웨딩 시즌을 맞아 케틀 아이템으로 '타피나 T 투 내로우 링'을 추천한다. T 문양을 따라 다이아몬드가 한 줄 세로로 있거나 정교하게 패배 세팅된 디자인, 그리고 메탈 소재로만 이루어진 버전 등 3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으며 18K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로즈 골드 중 원하는 소재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547-9488



타피나



반클리프 아펠



오메가

SHOWROOM

FASHION

일라리가 돋보이며, 보온성이 뛰어난 동시에 경량까지 극대화한 아우터부터 시연한 소재의 여름 상품까지, 시즌을 이루르는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274-6483

브루넬로 쿠치넬리 2018 F/W 여성 컬렉션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레트로와 민속적인 분위기가 결합되어 독특하고 자연적인 인상이 특징인 '2018 F/W 여성 컬렉션'을 선보인다. 시트럴 패턴과 플로럴 패턴, 그리고 자수로 번티지한 무드를 표현했으며, 여성적인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번 시즌 메인 소재인 벨벳을 다양하게 활용해 매력적인 룩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48-2931

콤데가르송 비아 델라 스피가 디오네 소프트 백 콤데가르송 비아 델라 스피가는 디오네의 새로운 버전인 '디오네 소프트 백'을 선보였다. 캐주얼한 데일리 백으로 제안하는 디오네 소프트 백은 무궁 악어가죽으로 제작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셰이프가 특징. 악어가죽 슬더 스트랩 외에 캔버스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

으며 카와 브라온, 27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516-9517

고아드 2018 한정 컬러 터퀴즈 블루 신제품 론칭 고아드는 2018년 특별 한정판 컬러인 터퀴즈 블루를 적용한 '생 루이' 토트백과 '세니' 클라치를 국내 론칭한다. 고아드의 트레이드마크인 고아드 패턴에 터퀴즈 블루를 입혀 경쾌하고 청량감이 넘치며, 제품 가운데 각기 다른 마카주 패턴을 직업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3479-1153

보테가 베네타 탬부라 백 보테가 베네타는 2018 F/W 시즌을 맞아 새로운 세이프의 탬부라 백을 선보인다. '드림'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Tamburo'에서 따온 탬부라 백은 평평하고 둥근 비단 위에 버킷 백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 또 참 장식을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링을 추가해 이번 시즌 선보이는 다양한 침을 달아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고아드



보테가 베네타